



보도시점 2026. 5. 13.(수) 11:00  
5. 14.(목) 조간

배포 2026. 5. 13.(수) 09:00

##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 2026년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
- 5월 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피해시 신속복구 등 본격 대응 태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722.9mm)과 비슷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의 태풍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온은 평년(23.7℃)보다 높고, 폭염 및 열대야 발생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 (4.1.~5.30.)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4월 1일부터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저수지 534개소, 전국 배수장 1,470개소, 상습침수 지역의 배수로 4,203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양수기 확보, 감시인력 배치, 퇴적토 및 수초제거 여부 등 점검·보완

- (원예시설) 최근 3년간 피해를 본 시설 3,123개소(과수원 1,078, 시설하우스 2,045)와 지방정부가 선정한 취약시설 5,871개소(과수원 3,139, 시설하우스 2,732)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 점검·보완
- (축산시설) 재해 취약시설 1,546개소(저지대 338, 산 인접 326, 과거 피해 343, 간이·노후 407, 고령농 등 132)를 대상으로 축대보수,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송풍팬·냉방설비 정상가동, 정기소독 여부 등 점검·보완
- (매몰지) 과수화상병 매몰지 370개소, 가축매몰지 166개소(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117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 45, 구제역 4),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977km) 등에 대하여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매몰지 주변 물 고임, 배수로 정비상태, 지반침하 및 낙석시설물 고정 등 점검·보완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34,072개소)을 대상으로 낙석·붕괴·침식, 사방 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 대피체계 등 점검·보완
- (태양광)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1,319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여부와 침식·붕괴·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하여 점검·보완

### <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5월 15일~10월 15일) >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 재해대책 상황실: 재해 총괄(농식품부 소득국), 소관 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방정부(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②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진청, 지방정부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 등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진청·산림청·지방정부·농어촌공사·농협 등 각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집중호우·태풍 시 국민 행동요령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





# 농업인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요령 사전대비



## 과수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벼, 밭작물



잡초 제거, 배수로 사전 정비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및  
결박 조치



출입문 및 환기창 고정,  
강풍 유입 방지



붕괴 우려 축사는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

## 안전사고 예방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

# 농업인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요령 발생 및 사후관리



## 과수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이 잘라낸 후 약제 살포



생육불량 포장은 잎에 영양제 살포

## 벼, 밭작물



침-관수된 논은 물 빼기,  
흙 양금 제거



겉흙이 씻겨 나간 곳에 흙 보완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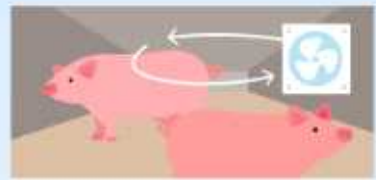
## 가축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축사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예방접종 실시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

## 안전사고 예방



집 주변의 산사태, 침수 등  
위험 시 대피 준비



천동-번개 등 낙뢰 위험 시  
건물 안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피해 상황을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복구지원 요청